

1999년 1월 20일, 벤처 중심 '경제살리기' 실천과제 발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IMF 사태로 움츠러든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벤처 기업 중심의 창업분 조성을 제시했다. 프론티어사업가 양성, 창업아이디어 경연대회, 엔젤 투자그룹 결성, 벤처 기업주식 10주 갖기, 1실험실 1창업 운동 등 구체적 시안을 담은 5대 실천과제(창업분 조성 캠페인)를 발표함으로써 중장기적 경제제도에 청신호를 밝혔다. 특히 우량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해줄 엔젤투자 분위기 확신을 위한 엔젤회원 1만명 확보, 벤처기업과 엔젤투자자 간 정보교류의 장인 엔젤마트 개최 등이 세부안에 포함됐다. 이후 2~3년 동안 벤처기업 창업이 급증한 것을 보면 캠페인 덕을 톡톡히 본 듯, 예나 지금이나 창업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여전하다.

2000년 1월 26일, 벤처기업 사회공헌 활동 본격 전개

협회 임원사 10여 곳이 주축이 되어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벤처기업이 나눔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메디슨, 휴맥스, 핸드소프트 등이 각 1백억원씩 출연해 자체 공익재단을 설립한 데 이어 한글과컴퓨터(50억원), 비트컴퓨터(20억원), 하늘사랑정보(10억원)도 대열에 합류했다. 재원은 각각 의료봉사, 학술지원, 불우이웃돕기, 실직자돕기 등에 쓰이게 된다. 이와 함께 5백여 개의 벤처기업들이 학술, 문화, 봉사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당시 협회장을 맡았던 이민화 회장은 "편중된 부의 사회환원과 성장 결실 공유를 위해 이윤의 사회환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 앞으로도 쭉~이어 지길!

2005년 1월 20일, 벤처종합상사 '인케코퍼레이션' 출범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과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도와줄 전문기업 인케코퍼레이션대표 전하진이 출범했다.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해외 파트너를 모색하고 투자, 마케팅, 공동연구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줄 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 이에 리딩벤처기업들의 경영노하우와 INKE 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개발을 지원하고자 인케코퍼레이션이 탄생했다. 협회의 임원사들이 주주로 참여했으며, 명실상부한 벤처종합상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첫발을 내딛었다.

인케코퍼레이션의 1주년을 축하하며 10주년, 100주년이 될 때까지 파이팅!!



인간 이성의 한계를 묻는 역설 《패러독스의 세계》

논리적 사고의 빈틈을 파고드는 인간 이성의 미궁, 패러독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당연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전제 위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그 당연한 전제에서 끌어낸 결론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론이 왜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도대체 설명할 방법 또한 없다. 이것이 바로 패러독스다. 한마디로 패러독스란 인간의 이성이 길을 잃고 헤매게 만드는 미궁과도 같은 것이다. 이 책 《패러독스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접할 수 있는 12가지 흥미로운 패러독스를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이 패러독스가 인간의 이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면서,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신념은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저자가 다양한 역설과 수수께끼를 예로 들어가며 흥미롭게 풀어가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완전한 지식에 이르기 위한 패러독스의 본질을 만날 수 있다. (뿌리와 이파리 펴냄)